

새만금 내부토지 활용방안



이봉훈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장
bhlee00@korea.kr

1. 서 론

새만금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간 33km 방조제를 축조하여 28,300ha 간척토지와 11,800ha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1년 사업을 착수한 후, 2006년 방조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2010년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2007년 4월 참여정부 시절 농지조성 위주(농지 72%)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

상'을 마련한 바 있으나, 현 정부 들어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타당성용역, 공청회, 농업계단체 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10월 농지비율을 축소하고 다양한 토지용도를 반영한 새로운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표 1 참조)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변경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년 말 까지 농업단지 등 토지용도별로 세부개발방안을 마련하

〈표 1 : 기본구상 변경내용〉

구분	계	농업 용지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농촌 도시	신·재생 에너지	환경 용지	유보 용지	방수제 등
당초 ('07.4)	28,300ha (100%)	20,250 (71.6)	1,870 (6.6)	990 (3.5)	660 (2.3)	430 (1.5)	3,000 (10.6)	- (-)	1,100 (3.9)
변경 ('08.10)	28,300ha (100%)	8,570 (30.3)	2,870 (10.2)	990 (3.5)	460 (1.6)	830 (2.9)	5,950 (21.0)	7,530 (26.6)	1,100 (3.9)
- 2020까지	18,410 (65.1%)	8,570 (30.3)	1,950 (6.9)	500 (1.8)	460 (1.6)	830 (2.9)	5,000 (17.7)	- (-)	1,100 (3.9)
- 2021이후	9,890 (34.9%)	- (-)	920 (3.3)	490 (1.7)	- (-)	- (-)	950 (3.3)	7,530 (26.6)	- (-)

* 유보용지(27%) 잠재용도 : 산업(FDI) 4%, 관광 5, 과학·연구 8, 국제업무 2, 신·재생에너지 4, 배후도시 4

는 등 새만금 전체 내부토지개발에 대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업단지의 경우도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전의 수도작(벼농사) 중심의 간척농지 개발이 아닌 수출지향형 첨단복합농업, 에너지 자족형 녹색성장 중심 지역 등 미래지향적 비전과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업단지 모델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발수요 발생전까지 농지로 활용하는 유보용지에 대해서도 농업적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새만금호 수질정화기능 및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용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내부토지별 개발방안

가. 농업단지 개발방안

농업용지에 대한 비전은 인간·가치·환경이 함께하

는 복합농산업단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 수출전진기지, 에너지공급 자족과 농업생산이 어울려진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지역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단지의 핵심요소로 농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고품질 수출지향형 농업생산, 농촌생태관광,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 녹색성장시범단지를 도입할 계획이다.(그림 2 참조)

농업단지내 도입되는 단지기능은 복합곡물단지,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 원예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테마파크, 첨단복합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농촌마을 등이 될 예정(표 2, 그림 2 참조)이며,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모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기반시설 지원(700ha), 녹색성장 시범단지(50ha) 조성 및 첨단농업 시험단지(170ha) 등을 2012년까지 개발 지원하여 새만금 조기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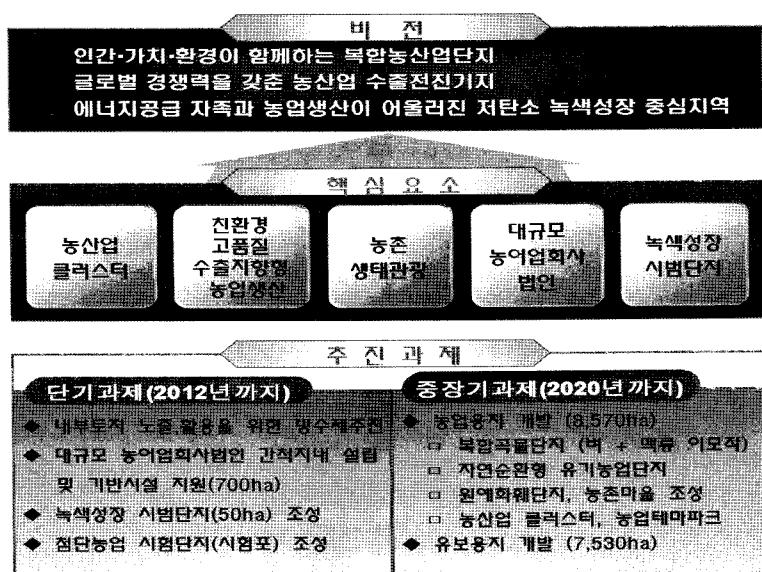


그림 1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추진과제 및 비전

〈표 2〉 새만금 농업지역내 도입가능 및 면적

구 분		면적(ha)	목 적
농업 생산	복합곡물단지	4,000	토지이용 극대화, 안정된 식량기지 확보 규모화·기계화 영농
	자연순환형유기농업단지	570	친환경축산 실현(경종 연계),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원예단지	2,600	자본/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수출을 지향하는 대규모 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	700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업경영체 육성단지
농촌관광	농업테마파크	100	친환경·생태·문화 기반 관광
지원 기능	첨단농업시험단지	170	연구,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견인
	농산업 클러스터	300	생산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농촌마을	130	직주근접의 편리한 주거공간 조성과 관광 근거지 형성



그림 2 새만금 농업지역내 개발 구상도

농업단지는 개발시기(1~4단계)와 표고를 고려한 구역설정(1~3구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

(그림 3 참조)이며, 1단계(2012년까지)에는 1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어업회사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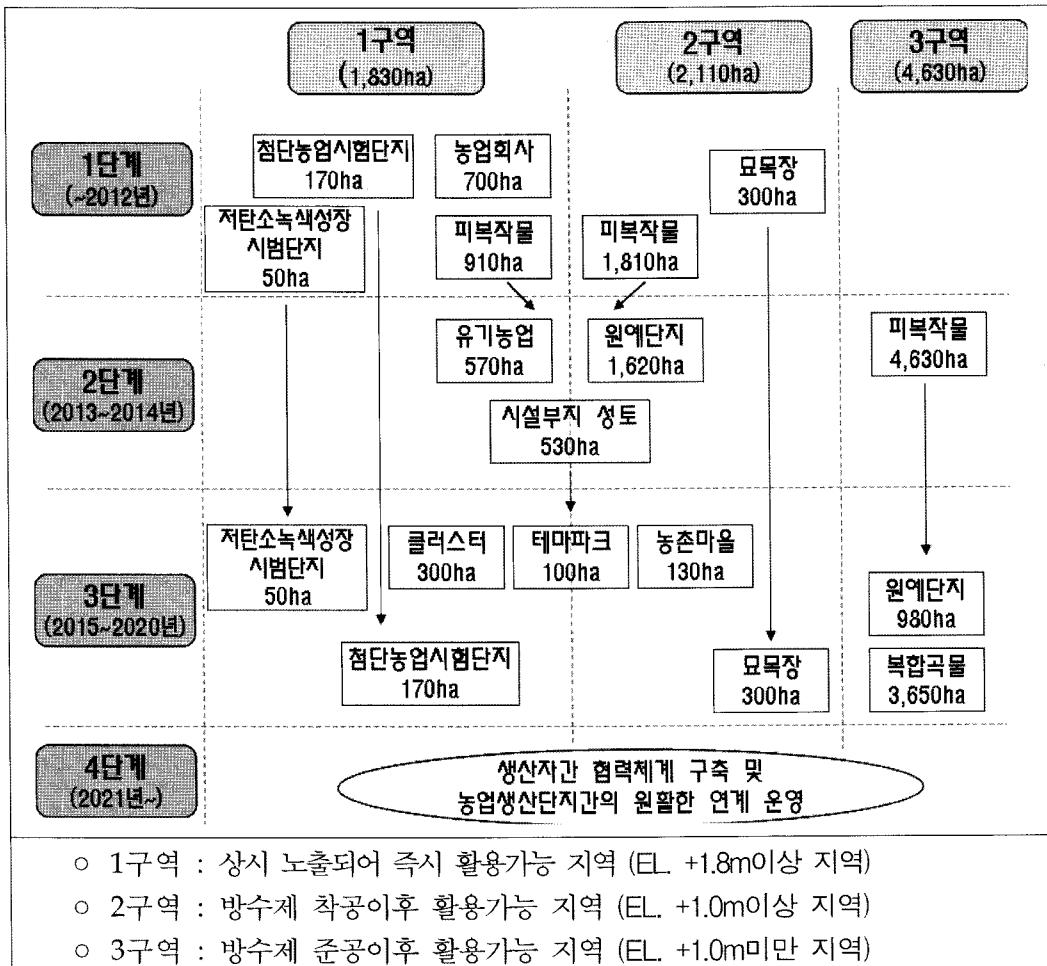


그림 3 새만금 농업지역내 개발 구상도

등을 조성하여 내부토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방수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내부개발 단계의 시작으로 첨단복합 농업생산단지의 본격 조성과 시설부지를 성토하며 4단계에는 비교적 저지대인 3구역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1~2구역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단계는 생산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단지간의 원활한 연계 운영을 지원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1구역 : 상시 노출되어 즉시 활용가능 지역 (EL. +1.8m 이상 지역)
- 2구역 : 방수제 착공이후 활용가능 지역 (EL. +1.0m 이상 지역)
- 3구역 : 방수제 준공이후 활용가능 지역 (EL. +1.0m 미만 지역)

나. 유보용지 활용방안

전체 내부토지 면적(28,300ha)중 2020년까지 개발 수요가 불분명하여 설정된 유보용지(7,530ha)는 수요 발생시까지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유휴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문제 저감의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배수가 용이한 지역은 조기에 사료작물, 바이오작물,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고 활용이 곤란한 저지대는 습지나 저류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타용도 개발이 늦어지면 최소한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도입하여 곡물생산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 생태·환경용지 활용방안

새만금의 생태·환경용지(5,950ha)는 하류 또는 저지대 지역으로 간척지 내에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담수호 수질정화기능과 자연경관 향상이 가능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간척지 내에 생태계를 형성·보전하기 위해 생물서식처,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기능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5. 방조제 명소화 개발계획

방조제 명소화사업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km) 제방을 따라 다기능부지를 조성하고(면적 420ha, 폭 70~400m 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각종 위락·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방조제를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다기능부지는 2009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민간투자 가능성 및 개발수요가 높은 3호 방조제(신시~야미도) 구간부터 복합리조트 단지와 관광·휴양·레저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6. 방수제 개발방안

방수제는 담수호와 내부토지를 경계 짓는 내측 제방공사로서 물에 잠겨있는 간척토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방수제공사의 주요 공종으로는 방수제 125km, 승수로 46km, 교량 36개소, 배수문 15개소 등이 있고, 사업기간은 2009~2014년까지 6년간으로서 사업비는 총 3조 3,016억원(1구간 97km(농식품부 소관) : 2조 189억 원, 2구간 28km(국토부 소관) : 1조 2,82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수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레저, 생태녹지, 신재생에너지 기능 등이 결합된 다기능부지를 조성하여 수변·생태공간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7. 향후 추진계획

새만금지구의 향후 개발일정은 우선 1단계로 '10년 말까지 외곽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조제 다기능부지를 활용하여 금년말에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10년부터 명소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방수제 완공단계('09말~'14년)로서 내부토지를 모두 드러나게 하기 위해 '12년까지 제방에 대한 성토공사를 추진하고 '14년까지 교량, 도로 등 구조물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3단계는 용도별 단지개발 단계('10~'20년)로서 농업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녹색성장 시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 기반 지원 및 농지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복합곡물단지, 유기농업단지, 원예화훼단지, 클러스터 등 농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